

제14장 비유동부채

제1절 화폐의 시간가치

제2절 비유동부채의 의의 및 종류

제3절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과 회계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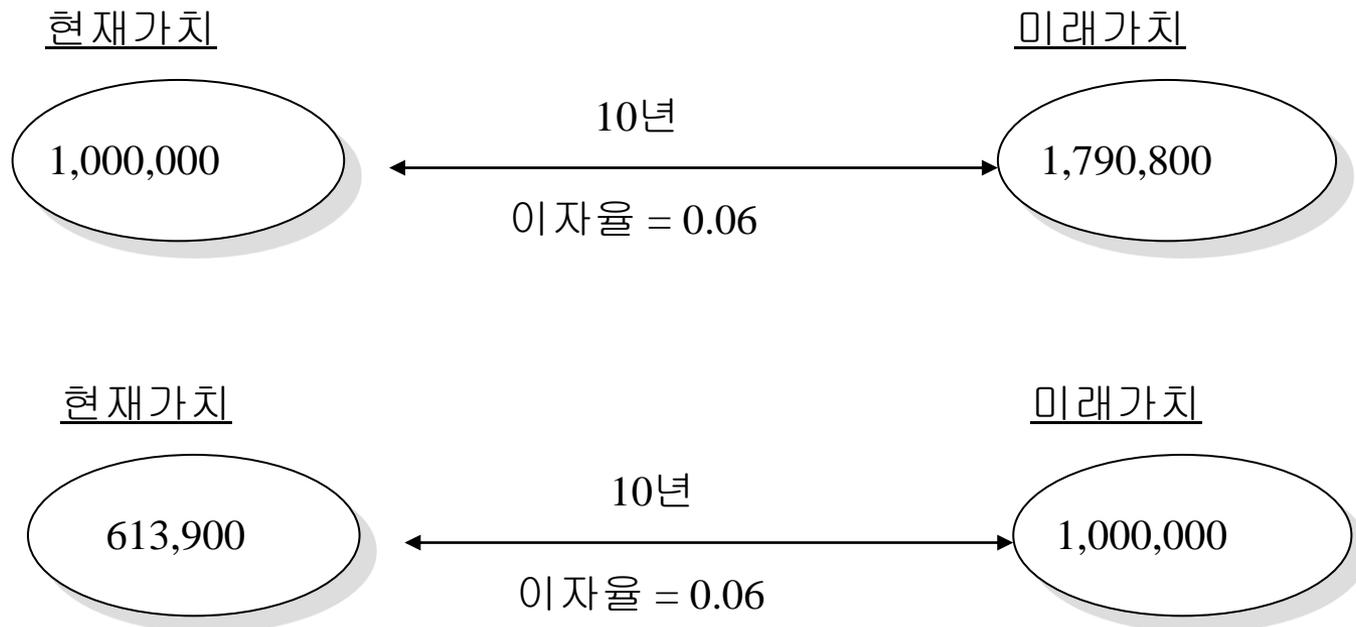
제4절 기타 장기차입부채와 유동성 장기차입부채

제5절 장기충당부채

제1절 화폐의 시간가치

1) 화폐의 시간가치

- 화폐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. 이를 화폐의 시간가치(time value of money)라 함
- 아래의 그림에서 보면 현재가치 1,000,000을 미래가치로 환산하면 1,790,000이다. 또한 미래가치 1,000,000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613,000이 된다. 따라서 화폐의 시간적 가치는 달라진다



2) 단리이자계산

- 단리이자란? 원금에 대해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

$$\text{단리이자}(I) = P \times r \times n \text{ (원금} \times \text{이자율} \times \text{기간)} \dots\dots \text{(식1)}$$

$$P = \text{원금}, r = \text{이자율}, n = \text{기간}$$

- 원리합계란? 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

$$\text{원리합계}(S) = P + I \text{ (원금} + \text{이자)} \dots\dots\dots \text{(식2)}$$

$$P = \text{원금} \quad I = \text{단리이자}$$

(식1)과 (식2)를 종합하면,

$$S = P \times (1 + r \times n) \dots\dots\dots \text{(식3)}$$

[예제 1] 이자율 연6%, 원금 ₩1,000,000을 2년간 대여한 경우의 단리이자와 원리합계는?

[풀이] 이자 : $1,000,000 \times 0.06 \times 2 = ₩ 120,000$

원리합계 : $1,000,000 \times (1 + 0.06 \times 2) = ₩ 1,120,000$

3)복리이자 계산

- 복리이자란? 이자계산시 1년이 지나면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‘이자에도 이자가 붙는’ 이자계산법

앞의 (예제 1)의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면

1차 연도 이자는 60,000 ($1,000,000 \times 0.06 \times 1 = \text{₩ } 60,000$)

2차 연도 이자는 63,600 ($1,060,000 \times 0.06 \times 1 = \text{₩ } 63,600$)

2년간의 이자는 **123,600 = 60,000+63,600** (단리이자120,000)

복리이자 (I) = $P \times r^n$ (원금 x 이자율^{기간})..... (식1)

원리합계 (S) = $P \times (1 + r)^n$ (원금 x (1+이자율)^{기간}) ... (식2)

[예제 2] 원금 ₩1,000,000, 이자율 연 6%, 기간 10년 의 복리로
예금하면 10년 후에 원리합계(미래가치)는 얼마인가?

[풀이] 원리합계 = $1,000,000 \times (1 + 0.06)^{10} = \text{₩ } 1,790,800$

* $(1 + 0.06)^{10}$ 의 값 \rightarrow p. 430(부록표1) 단일금액의 미래가치표를 이용

4) 단일금액의 미래가치

미래가치(FV) = 현재의 일정금액을 미래시점에서 평가한 가치

현재가치(PV_0), 기간 n , 이자율 r 의 미래가치(FV_n)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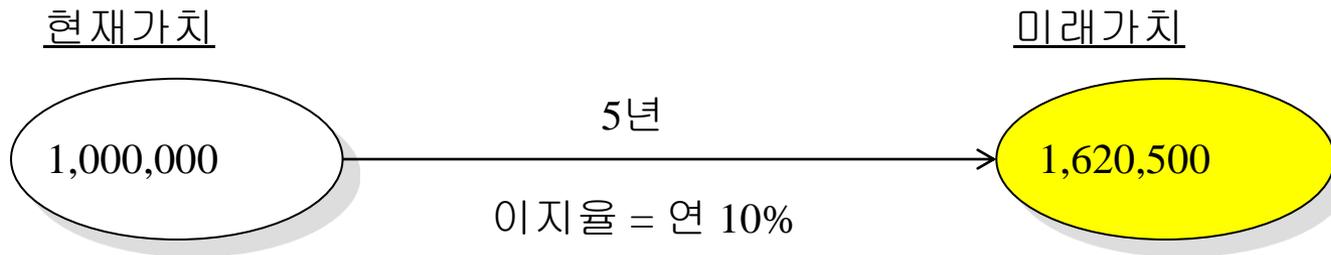
$$\rightarrow FV_n = PV_0 \times (1 + r)^n \dots\dots\dots (식1)$$

[예제 3] 현재가치 ₩1,000,000, 이자율 10%, 5년 후의 미래가치는?(단, 복리)

[풀이] 이자 = $1,000,000 \times (1 + 0.10)^5 = ₩1,790,800$

$$1,000,000 \times 1.6105 = 1,620,500$$

* $(1 + 0.10)^5$ 의 값 \rightarrow p. 430(부록표1) 단일금액의 미래가치표를 이용



5) 단일금액의 현재가치

현재가치(PV, present value) = 미래의 금액을 현재시점에서 평가한 가치
= 미래가치와 역의 관계

미래가치(FV_n), 기간 n , 이자율 r 의 현재가치(PV_0)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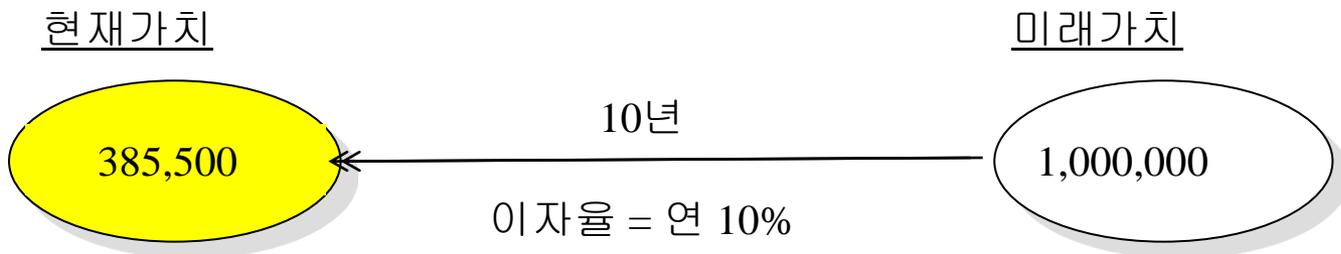
$$PV_0 = FV_n \times 1 / (1 + r)^n \dots \dots \dots \text{(식2)}$$

$1 / (1 + r)^n$: 단일금액의 현재가치 표(교재 부록 p. 432)

[예제 4] 10년 후의 ₩1,000,000을 연간 복리이자율 $r = 10\%$ 를 적용하여 계산한
현재가치는?

[풀이] $PV_0 = 1,000,000 \times 0.3855 = 385,500$

* $1 / (1 + 0.06)^{10} \rightarrow$ 단일금액의 현재가치 표(교재 부록 p. 432)



6) 정상연금의 현재가치

정상연금의 현재가치란? 미래의 매기간 말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현재시점으로 통일하여 계산한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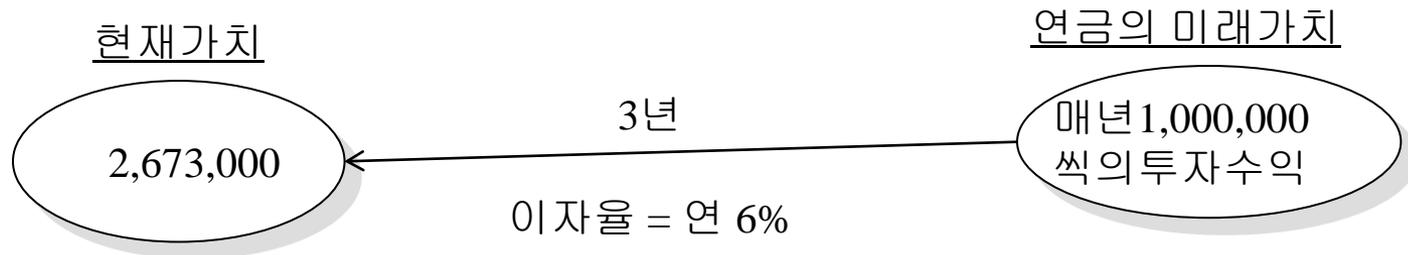
$$\rightarrow PV_0 = A \sum [1/(1+r)^t] \quad (\text{매기간의 정상연금} = A)$$

[예 4] 매년 말에 ₩1,000,000씩 3년간 지급하는 연금이 현재가치는 얼마인가?
단, 연간이자율이 $r = 6\%$ 이다

<풀이> $PV_0 = 1,000,000/(1+0.06) + 1,000,000/(1+0.06)^2 + 1,000,000 / (1+0.06)^3$
 $= 1,000,000 \sum [1 / (1 + 0.06)^3] = ₩2,673,000$

연금총액은 **3,000,000** 이나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**2,673,000**이 된다

* $\sum [1 / (1 + 0.06)^3]$ → <교재부록표 4> 연금의 현재가치 표를 이용가능



7) 정상연금의 미래가치

정상연금의 미래가치 = 매기간 말에 발생하는 연금을 미래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통일하여 계산한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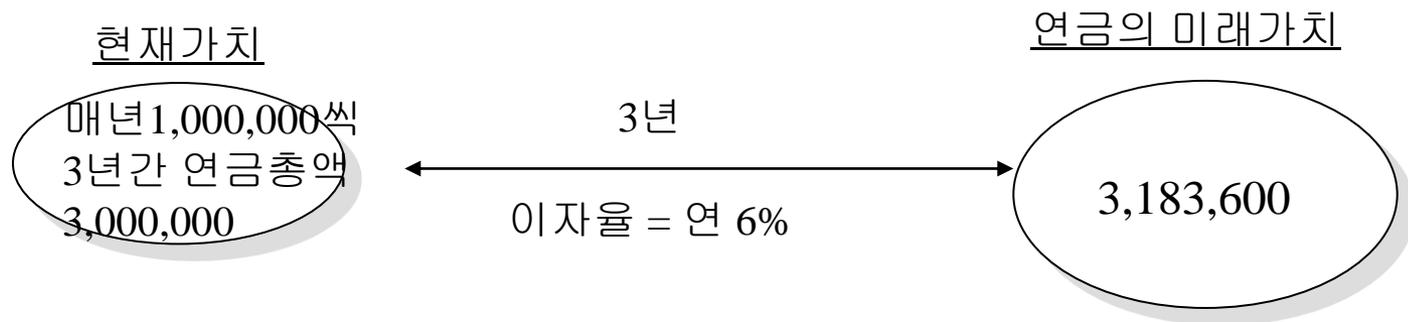
$$\rightarrow FV_n = A \sum (1 + r)^t \quad (\text{매기간 정상연금} = A)$$

[예제 5] 향후 3년간 ₩1,000,000씩 정기적금을 가입하여 불입하면 3년 뒤에 얼마의 금액을 찾을 수 있는가? 단, 복리이자율(r)은 연6%이다

<풀이> $FV_n = 1,000,000 \times (1 + 0.06) + 1,000,000 \times (1 + 0.06)^2 + 1,000,000 \times (1 + 0.06)^3$

$$= 1,000,000 \times \sum (1 + 0.06)^t = ₩3,183,600$$

* $\sum (1 + 0.06)^t \rightarrow$ <부록표 5> 연금의 미래가치 표를 이용가능



제2절 비유동부채의 의의 및 종류

1) 부채의 의의

미래에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,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을 부채(liability)라 함

2) 종류

유동부채 :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(지급)할 의무가 있는 부채

비유동부채 :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(지급) 할 의무가 없는 부채

구분	계정과목
유동부채	① 매입채무(외상매입금과 받을어음) ② 단기차입금 ③ 미지급금 ④ 선수금 ⑤ 예수금 ⑥ 미지급비용 ⑦ 선수수익 ⑧ 유동성장기부채 ⑨ 미지급배당금 ⑩ 미지급법인세 ⑪ 기타의 유동부채
비유동부채	① 사채 ② 장기차입금 ③ 장기성매입채무 ④ 임대보증금 ⑤ 퇴직급여 충당부채 ⑥ 제품보증충당부채 ⑦ 이연법인세대 ⑧ 기타의 비유동부채

3) 기업자금조달과 사채

기업의 자금조달방법 : 기업내부에서 조달(주주들의 추가출자)

기업외부에서 조달(금융기관, 사채시장)

- 단기 운전자금 →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단기간 차입(단기차입금)
(이자율이 높다, 상환기간이 짧다)
- 장기 설비투자자금 → 금융기관 또는 증권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
(사채 및 주식발행)

- **사채**를 발행하여 자금조달

- 재무상태표에 **부채**로 표시
- 만기(maturity date)시 상환의무가 있음
- 차입기간 동안 일정한 **이자지급**의무 있음

- **주식**을 발행하여 자금조달

- 재무상태표에 **자본**으로 표시

4) 사채의 의의

- 사채(bonds) : 주식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장기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

- 채권(bonds)의 종류 :

① 국채·지방채(포괄하여 공채)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

② 회사채(또는 줄여서 사채): 회사기업이 발행한 채권

- 사채의 장단점

① 장점

-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차입하여 조달할 수 있음
- 사채이자율이 일정하므로 기업의 경영성과(이익)가 많아도 일정하게 지급됨
(배당금은 경영성과(이익)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게 됨)
- 사채권자는 경영권이 없으므로 기업의 지배권을 침해당할 우려는 없음

② (단점)

- 약정기한이 도래되면 변제를 하여야 하므로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의무가 있음.
- 거액의 사채는 부채비율이 높아지므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게 됨
- 사채비중이 늘어나면 주주의 배당요구가 증가되므로 보통주의 자본비용이 상승

5) 사채의 발행요건

- ① 사채총액은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 배를 초과하지 못함
- ② 사채발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함
- ③ 전에 모집한 사채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함.
- ④ 각 사채의 금액은 1 만원 이상이며 동일 종류의 사채에서 각 사채의 금액은 균일
- ⑤ 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2 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함

액면금액 = 발행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의 금액(1주당 액면금액, 10,000원)

액면이자율 = 사채권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연간이자율(연 5%)

발행일 = 회사채가 발행된 날짜(20x5년 1월 1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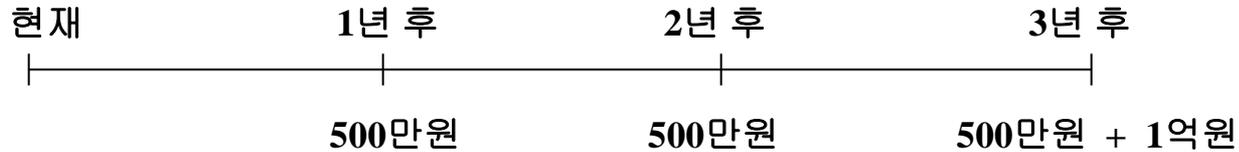
만기일 = 액면금액의 지급 약속일(20x7년 12월 31일)

이자지급 방법: (예) 연간 4회, 연간 2회, 연간 1회

(예) 후급, 선급. 분할 지급, 만기일에 일시지급 등

이자표(coupon, **쿠폰** 또는 **이표**):

사채발행기업의 이자 및 원금 지급현황



6) 사채의 종류

(1) 담보부사채와 무담보부사채

- 담보부사채 : 채권자에게 토지와 건물과 같은 고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발행한 사채.
- 무담보부사채 : 담보없이 발행하는 사채로 신용이 좋은 대기업만이 발행가능.

(2)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

- 보증사채 : 보증기관이 발행한 사채를 보증해 주는 사채
(보증기관은 은행, 증권회사 및 보증보험)
- 무보증사채 : 보증기관이 발행한 사채를 보증해 주지 않는 사채
발행회사가 원금, 이자의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채권자가 손실을 감수

(3)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

전환사채 : 사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주식(보통주)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.

신주인수권부사채 :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.

(4) 만기상환사채, 연속상환사채 및 수시상환사채

만기상환사채 : 만기에 사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사채.

연속상환사채 :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동안 매년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채.

수시상환사채 : 만기일 이전에 발행회사가 수시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

(5) 기명식사채와 무기명식사채

기명식사채 : 사채권자의 명의가 사채증서에 나타나는 사채.

무기명식사채 : 사채권자의 명의가 사채증서에 나타나지 않는 사채.

사채권의 양도가 자유로움

7) 사채의 발행방법

(1) 사채의 발행가격

- 사채발행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사채발행가격에 차이가 있음
- 기업이 사채를 발행할 때 등급사정기관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신용도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는 것으로 사채의 발행조건은 이 등급에 의하여 차이가 생김
-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일수록 높은 가격으로 발행되고 거래됨
기업신용등급은 AAA, AA, A, BBB, BB, B, CCC 등으로 차이가 있음
- 등급사정기관으로는 미국에 무디사나 스탠다드 앤드 푸어사(S&P)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기업평가(www.korearatings.com), 한국신용평가사, 한국신용정보사가 있음
-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여 공시함

(2) 사채의 발행방법

- 사채발행은 액면이자율(표시이자율)과 시장이자율(유효이자율)에서 결정됨
- 액면이자율 = 사채발행기업이 향후 이자지급을 약속한 이자율
- 시장이자율 = 자본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되는 이자율.

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사채가 발행될 때 결정되는 할인율

액면이자율은 국채이나 사채에 인쇄되어 있는 이자율. 3%로 인쇄되어 있으면
연간 3%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

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이라고도 하는데,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

예를 들면 사채의 액면이자는 5%,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는 10%라고
하면 투자자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?

- 사채발행은 액면이자율(표시이자율)과 시장이자율(유효이자율)에서 결정됨

<사채발행>

- (1) 액면발행 : 액면이자율 = 시장이자율, 사채액면금액 = 실제발행가액
- (2) 할인발행 : 액면이자율 < 시장이자율, 사채액면금액 < 실제발행가액
- (3) 할증발행 : 액면이자율 > 시장이자율, 사채액면금액 > 실제발행가액

이 자 율	발행가액	발행방법	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 차액
액면이자율 = 시장이자율	액면가액	액면발행	차액 없음
액면이자율 > 시장이자율	할인가액	할증발행	사채할증발행차금
액면이자율 < 시장이자율	할증가액	할인발행	사채할인발행차금

[예제 1]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채발행가격은?

- ① 발행조건 : 액면 ₩1,000,000 ② 액면이자율 10%
- ③ 상환일 : 3년 ④ 이자지급조건 : 1년마다 지급

(풀이) 시장이자율(r , 유효이자율)이 10%이면 사채발행가격은?

① 액면금액 현재가치 = $1,000,000(\text{액면금액}) / (1 + 0.10)^3 = 751,300$

(단일연금 현재가표를 이용) : $1,000,000 \times 0.7513 = 751,300$

② 사채이자 현재가치 = $100,000 / (1 + 0.10) + 100,000 / (1 + 0.10)^2$
 $+ 100,000 / (1 + 0.10)^3 = 248,680$

(단일연금현재가표를 이용) : $100,000 \times 2.4868 = 248,680$

사채발행가격은 $751,300 + 248,680 = 999,980 \approx 1,000,000$

시장이자율(10%) > 액면이자율(10%) → 발행가격 = 액면금액 → 액면발행

[예제 2]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채발행가격은?

- ① 발행조건 : 액면 ₩1,000,000 ② 액면이자율 10%
- ③ 상환일 : 3년 ④ 이자지급조건 : 1년마다 지급

(풀이) 시장이자율(r , 유효이자율)이 12%이면 사채발행가격은?

① 액면금액 현재가치 = $1,000,000(\text{액면금액}) / (1 + 0.12)^3 = 711,800$

(단일연금 현재가표를 이용) : $1,000,000 \times 0.7118 = 711,800$

② 사채이자 현재가치 = $100,000 / (1 + 0.12) + 100,000 / (1 + 0.12)^2$
 $+ 100,000 / (1 + 0.12)^3 = 248,180$

(단일연금현재가표를 이용) : $100,000 \times 2.4868 = 248,180$

사채발행가격은 $711,800 + 248,180 = 951,980$

시장이자율(12%) > 액면이자율(10%) → 발행가격 < 액면금액 → 할인발행

[예제 3]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채발행가격은?

- ① 발행조건 : 액면 ₩1,000,000 ② 액면이자율 10%
- ③ 상환일 : 3년 ④ 이자지급조건 : 1년마다 지급

(풀이) 시장이자율(r , 유효이자율)이 8%이면 사채발행가격은?

① 액면금액 현재가치 = $1,000,000(\text{액면금액}) / (1 + 0.08)^3 = 793,800$

(단일연금 현재가표를 이용) : $1,000,000 \times 0.7938 = 793,800$

② 사채이자 현재가치 = $100,000 / (1 + 0.08) + 100,000 / (1 + 0.08)^2$
 $+ 100,000 / (1 + 0.08)^3 = 257,710$

(단일연금현재가표를 이용) : $100,000 \times 2.5771 = 257,710$

사채발행가격은 $793,800 + 257,710 = 1,051,500$

시장이자율(8%) < 액면이자율(10%) → 발행가격 > 액면금액 → 할인발행

5) 사채발행차금의 회계처리

(1) 사채할인발행차금의 회계처리

- 사채할인발행차금 = 액면금액 - 발행가액

(예) 액면금액 : 10,000 → 발행가액 : 9,475

$$\text{사채할인발행차금} = 10,000 - 9,475 = 525$$

→ 사채할인발행차금 계정에 기록

= 사채계정의 차감계정 (마이너스 부채 계정)

사채발행의 분개:

(차) 현금	9,475	(대) 사채	10,000
사채할인발행차금	525		

- *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의 차감계정으로 사채상환기간에 걸쳐 상각되어 이자비용에 가산됨

(2) 사채할증발행의 회계처리

(용어) 사채할증발행차금 = 발행가격 - 액면금액

(예) 액면금액 = 10,000 → 발행가액 = 10,278

사채할증발행차금 = 10,278 - 10,000 = 278

→ 사채할증발행차금 계정

= 사채계정의 부가(+)계정 (플러스 부채 계정)

사채발행의 분개:

(차) 현 금	10,278	(대) 사 채	10,000
		사채할증발행차금	278

*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상환기간에 걸쳐 상각되어 이자비용에서 차산됨

6) 사채이자의 회계처리

[예제 1] 20X1년 다음의 사채에 대하여 연말에 지급할 이자의 회계처리는?

- ① 발행조건 : 액면 ₩1,000,000 ② 액면이자율 5%
- ③ 상환일 : 3년 ④ 이자지급조건 : 1년마다 지급(연말지급)

1차 연도 말의 이자지급

(차) 이자비용	50,000	(대) 현금	50,000
--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

1차 연도 포괄손익계산서 표시:

손익계산서 (20x1년도)	

영업외비용	
이자비용	50,000

7. 사채할인(할증)발행차금의 상각

1. 회계처리원칙

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 : 사채이자 + 사채할인발행차금

사채할증발행차금의 상각 : 사채이자 - 사채할증발행차금

단, 상환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에 가산(또는 차감).

<사채할인발행차금>

이자비용(2,000) + 사채할인발행차금(1,200) = 이자비용(3,200)으로 처리

(차) 이자비용 3,200 (대) 현금 2,000

사채할인발행차금 1,200

<사채할증발행차금>

이자비용(2,000) + 사채할증발행차금(-1,200) = 이자비용(800)으로 처리

(차) 이자비용 800 (대) 현금 2,000

사채할증발행차금 1,200

(예제 1) 20x1년 1월 1일에 사채 액면 50,000을 47,000에 발행하고, 그 대금은 전액 현금납입하다. (단, 상환기한 3년, 이자지급 후급, 이자율 연 3%)

(차) 현금 47,000 (대) 사 채 50,000

사채할인발행차금 3,000

(예제 2) 20x1년 12월 31일에 상기 사채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.

(차) 이자비용 2,500 (대) 현금 1,500

사채할인발행차금 1,000*

*단, 정액법으로 처리하였음, 회계기준에서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처리함

20x1년도 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표시:

재무상태표 (20x1/12/31)		손익계산서 (20x1년도)	
장기차입부채:		...	
사 채	50,000	영업외비용:	
사채 할인발행차금	<u>(2,000)</u> ← 3,000 - 1,000	이자비용	2,500
	48,000		

(용어) 사채 장부가액 = 사채 액면금액 - 사채할인발행차금

= 48,000 → 발행시점(47,000)보다 1,000 증가

2) 상각방법

(1)정액법

사채할인(할증)발행차금을 사채의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동일한 금액씩 균등 상각하는 방법

(2)유효이자율법

사채할인(할증)발행차금을 사채의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

② 2차 연도의 이자비용 인식

- 20x2년 초의 실질 부채액 = 20x2년 초의 장부가액 = 9,638
- 실질이자율(유효이자율) = 7%
- 20x2년도 실질 이자비용 = $9,638 \times 7\% = 675$ → 손익계산서에 계상
- 20x2년도 연간 현금이자 = 액면금액 \times 액면이자율 = 500

(정리)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연간 이자비용 계산

$$\text{연도별 연간 이자비용} = \text{기초시점의 사채 장부가액} \times \text{유효이자율}$$

(설명) 실질 이자비용 = 실질 부채액 \times 실질이자율
= 기초 장부가액 \times 유효이자율

- 복리계산법에 의한 현재가치 계산법과 일관성 있음

2차 연도 말의 수정분개:

(차) 이자비용	675	(대) 현금	500
		사채할인발행차금	175

2차 연도 말의 재무상태표 와 손익계산서 표시:

재무상태표 (20x2/12/31)		손익계산서 (20x2년도)	
장기차입부채:		...	
사 채	10,000	영업외비용과 차손:	
사채 할인발행차금	<u>(187)</u> ← 362 - 175	이자비용	675
	9,813		

③ 3차 연도 이자비용 인식

- 20x3년도 연간 이자비용 = 기초 장부가액 x 유효이자율

$$= 9,813 \times 7\% = 687$$
- 20x3년도 연간 현금이자 = 액면금액 x 액면이자율 = 500

3차 연도 말의 수정분개:

(차) 이자비용	687	(대) 현금	500
		사채할인발행차금	187

3차 연도 말의 재무상태표 와 손익계산서 표시:

재무상태표 (20x3/12/31, 사채상환 전)		손익계산서 (20x3년도)
장기차입부채:		...
사 채	10,000	영업외비용과 차손:
사채 할인발행차금)	<u>(0)</u> ← 187 - 187	이자비용
	10,000	687

마지막 연도 말: 사채할인발행차금이 0이 되어야 계산이 정확한 것임

사채의 상황: 사채발행 당시에 약속한 10,000(액면금액)을 지급

(차) 사 채 10,000 (대) 현 금 10,000

위 분개에 의해 사채계정의 금액은 제거됨

연간 이자비용 계산표: 보조적으로 작성 가능

일 자	연간 이자비용 (A)	연간 현금이자 (B)	사할차 감소액 (C)	사채 장부가액 (D)
	기초 D x 7%	10,000 x 5%	A - B	기초 D + C
20x1/1/1	-	-	-	9,475
20x1/12/31	663	500	163	9,638
20x2/12/31	675	500	175	9,813
20x3/12/31	687	500	187	10,000
합 계	2,025	1,500	525	-

연간 이자비용 계산표: 보조적으로 작성 가능

일 자	연간 이자비용 (A)	연간 현금이자 (B)	사증차 감소액 (C)	사채 장부가액 (D)
	기초 D x 4%	10,000 x 5%	B - A	기초 D - C
20x1/1/1	-	-	-	10,278
20x1/12/31	411	500	89	10,189
20x2/12/31	408	500	92	10,097
20x3/12/31	403	500	97	10,000
합 계	1,222	1,500	278	-

① 1차 연도의 이자비용 인식

연간 이자비용 계산표에서

- 20x1년 이자비용 = 411 → 손익계산서에 계상
 - 현금이자 지급액 = 500 → 현금 지급(또는 미지급) 사실을 기록

 - 이자비용과 현금이자 지급액의 차이 = $411 - 500 = -89$
→ 사채할증발행차금을 89 감소시킴
- (이유) 이자비용이 411 발생하였으나, 실제로는 500을 지급
→ 89를 더 많이 지급한 상태
→ 실질 부채를 89 감소시켜야 함
→ 따라서 사채할증발행차금을 감소시킴 (= 부채 감소)

1차 연도 말의 수정분개:

(차) 이자비용	411	(대) 현금	500
사채할증발행차금	89		

1차 연도 말의 재무상태표 와 손익계산서 표시:

재무상태표 (20x1/12/31)		손익계산서 (20x1년도)
장기차입부채:		...
사 채	10,000	영업외비용과 차손:
사채 할증발행차금	<u>189</u> ← 278 - 89	이자비용
	10,189	411

② 2차 연도의 이자비용 인식

연간 이자비용 계산표에서

- 20x2년 이자비용 = 408
- 현금이자 지급액 = 500

2차 연도 말의 수정분개:

(차) 이자비용	408	(대) 현금	500
사채 할증발행차금	92		

2차 연도 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표시:

재무상태표 (20x2/12/31)		손익계산서 (20x2년도)
장기차입부채:		...
사 채	10,000	영업외비용과 차손:
사채 할증발행차금	<u>97</u> ← 189 - 92	이자비용
	10,097	408

③ 3차 연도의 이자비용 인식

연간 이자비용 계산표에서

- 20x3년 이자비용 = 403
- 현금이자 지급액 = 500

3차 연도 말의 수정분개:

(차) 이자비용	403	(대) 현금	500
사채할증발행차금	97		

3차 연도 말의 재무상태표 와 손익계산서 표시

재무상태표 (20x3/12/31, 사채상환전)		손익계산서 (20x3년도)
장기차입부채:		...
사 채	10,000	영업외비용과 차손:
사채할증발행차금	<u>0</u> ← 97 - 97	이자비용
	10,000	408

(3) 사채액면발행의 회계처리

사채할인발행차금이나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없으므로 회계처리 간단

사채발행의 분개:

(차) 현금 10,000 (대) 사 채 10,000

재무상태표 표시:

가상 재무상태표 (20x1/1/1)	
장기차입부채:	
사 채	10,000

매년 연간 이자비용과 연간 현금이자가 동일

매년 말의 이자비용 인식 분개:

(차) 이자비용 500 (대) 현 금 500

5) 사채발행비

사채발행비 = 사채권 인쇄비, 광고비 또는 위탁수수료 등의 직접부대비용

비용항목으로 별도 분류하지 않고 실제 사채발행가액에서 사채발행비를 차감한
나머지 금액을 사채발행가액으로 간주

(예) 액면금액 = 10,000 발행가액 = 9,475

사채발행비 = 130

→ 사채발행가액 = 9,475 - 130 = 9,345로 간주

→ 유효이자율의 계산 역시 9,475이 아닌 9,345에 근거해야 함

제4절 기타 장기차입부채와 유동성 장기차입부채

1) 장기차입금

장기차입금: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차입금

※ 단기차입금: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(유동부채)

2)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(current maturities of long-term debts)

장기차입부채 중에서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

- 유동성장기차입금 = 장기차입금 중에서 내년도에 상환해야 되는 부분
- 유동성사채 = 사채 중에서 내년도에 상환해야 하는 부분

매년 결산일에 재분류해야 함: 비유동부채에서 유동부채로 분류

[예제 10-7] 20x1년 5월 1일, 은행에서 1,000을 장기로 차입(만기 2년)

(물음 1) 20x1/5/1일 차입시점에서의 분개는?

<풀이>

(차) 현금 1,000 (대) 장기차입금 1,000

가상 대차대조표 (20x1/5/1)	
장기차입부채:	
장기차입금	1,000

(물음 2) 20x2/12/31일(결산일): 내년에 장기차입금 1,000을 모두 상환 예정

<풀이> 장기차입금 1,000을 제거하고(차변), 그 대신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계상(대변)

(차) 장기차입금 1,000 (대) 유동성장기차입금 1,000

대차대조표 (20x2/12/31)	
유동부채:	
유동성장기차입부채	1,000
장기차입부채:	
장기차입금	0

(물음 3) 20x3/4/30일(상환일): 장기차입금 모두 상환

<풀이> 유동성장기차입부채를 제거(차변)

(차) 유동성장기차입부채금 1,000 (대) 현금 1,000

제5절 장기총당부채

5.1 제품보증총당부채

장기총당부채: 지급시기 또는 지급금액 등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미래에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가능성이 높은 부채

(예) 제품보증총당부채, 퇴직급여총당부채 등

미래에 예상되는 현금지출에 대해 그 원인이 발생한 당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(즉, 당년도의 수익과 대응시킴) 그 예상 지출액을 장기총당부채로 인식

[예제 10-8] 20x1년도 제품보증으로 자동차 매출

- 자동차 매출: 2만대 x 대당 1,000만원 = 2,000억원 (현금판매 가정)
- 제품보증기간: 2년
- 예상 제품보증비용 = 2만대 x 대당 20만원(과거 경험) = 40억원

(물음 1) 소나타 매출과 제품보증비 인식을 각각 분개

<풀이>

- 매출: (차) 현금 2,000 (대) 매출 2,000
- 제품보증: (차) 제품보증비 40 (대) 제품보증충당부채 40

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표시:

대차대조표 (20x1년도)		손익계산서 (20x1년도)	
장기충당부채:		매출액	2,000
제품보증충당부채	40	판매비와 관리비:	
		제품보증비	40

(손익계산서) 매출(수익)이 인식된 연도에 그에 대응하는 비용(제품보증비)을
인식해야 함 →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

(대차대조표) 미래 예상되는 지출을 제품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함

제품보증충당부채의 설정: 대손충당금의 설정과 유사한 방법 적용(제7장)
제품보증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제품보증충당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

(물음 2) 판매 당년도인 20x1년에 제품보증서비스로 인하여 현금 16억원을
지출하였으면 이에 대한 분개는?

<풀이> 16억원 지출 → 향후의 부담이 16억원 감소
→ 제품보증충당부채 16억원 감소

(차) 제품보증충당부채 16 (대) 현금 16

대차대조표 (20x1/12/31)	손익계산서 (20x1년도)
장기충당부채:	매출액 2,000
제품보증충당부채 24 ← 40 - 16	판매비와 관리비:
	제품보증비 40

(물음 3) 다음 연도(20x2년도)에 전년도 자동차 매출과 관련하여 24억원의 제품보증비를 지출하였으면 이에 대한 분개는?

<풀이> 위의 (물음 2)의 분개 반복:

(차) 제품보증충당부채 24 (대) 현금 24

제품보증기간도 끝났음 → 제품보증충당부채는 0이 되어야 함
 20x2년도 손익계산서에는 제품보증비가 계상되지 않음
 (전년도에 전부 인식하였기 때문)

5.2 퇴직급여충당부채

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

→ 미래 지급의무

→ 당기말 대차대조표에 **퇴직급여충당부채**를 계상해야 함

→ 당기의 추가 퇴직급여액 → 손익계산서에 **퇴직급여** 비용으로 계상

모든 기업은 매년 결산일에 **근로기준법**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이 기말시점에 일시에 퇴직할 경우(가정)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(즉, 미래 지급예상액)을 추정해야 함

[예] 20x1년 12월 31일(기말): 퇴직급여충당부채 = 120억원

대차대조표 (20x1/12/31)	
장기충당부채:	
퇴직급여충당부채	120

(문1) 다음 연도인 20x2년 중에 퇴직한 임직원에게 총 15억 원을 현금 지급

<풀이> 퇴직금 15억 원 지급 → 퇴직급여충당부채 15억 원 만큼 감소

(차) 퇴직급여충당부채 15 (대) 현금 15

대차대조표 (20x2년도 기말 수정 전)	
장기충당부채:	
퇴직급여충당부채	105 ← 120 - 15

(문2) 20x2년 12월 31일 기준: 예상 퇴직금 추계액 = 130억 원

<풀이> 130억 원이 20x2년 말 대차대조표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표시되어야 함
→ 따라서 25억 원 (= 130 - 105)만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증가시켜야 함

증가분 25억 원 = 금년도 인원변동 및 장기근속 등에 의한 증분

→ 당기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식

(차) 퇴직급여 25 (대) 퇴직급여충당부채 25

대차대조표 (20x2/12/31, 수정 후)		손익계산서 (20x2년도)	
장기총당부채:		판매비와 관리비:	
퇴직급여총당부채	130	퇴직급여	25

퇴직급여총당부채: 130억원 = 미래 퇴직금 예상지급액(부채)

→ 반드시 기말 대차대조표에 표시

퇴직급여 25억원 = 금년도 순증분 → 손익계산서에 당기 비용으로 계상

감사합니다

